

# 보안사 공개 5·18 사진첩, 핵심 1~4권이 사라졌다

군 자료 보관 순번 중요... 1993년 이후 보안사 은닉·폐기 여부 주목  
학살 경위·헬기 사격·암매장 등 진상규명 실마리 풀 자료 있을 수도  
전문가 "계엄군 활동상 담긴 문서 가능성"... 반드시 찾아서 공개해야

39년만에 처음으로 공개된 보안사령부 5·18 사진첩(광주일보 2019년 11월 26일자 1면) 중 일부가 사라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이 지난 26일 국가기록원으로 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1980년 당시 5·18 관련 사진을 모은 사진첩은 17권 중 13권(1769매·중복포함)으로 5권부터 17권까지다. 가장 중요한 자료로 추정되는 전 반부 1~4권의 행방이 묘연하다.  
5·18 전문가들은 사라진 사진첩에는 5·18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 자료가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27일 박지원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진첩 자료 분석 결과, 사진첩은 남색 표지에 금박으로 테두리가 장식돼 있고, 사진첩 앞 표지 상단에는 '중거물사진 393-1980-5 (3책)'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마지막 숫자 5는 연번으로, 사진첩별로 5부터 17까지 순서대로 다른 숫자가 쓰여 있다. 사진첩 하단에는 '정보통신실 약자'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다.  
5·18연구자들과 군 관계자 등은 공개된

사진첩 표지 위에 적힌 라벨 중 393은 기록물 번호로 사진첩을 뜻하고, 1980은 1980년에 제작됐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괄호 안의 '3책'은 당시 보안사의 대공부서를 나타내고, 밑의 '정보통신실'은 '정보통신실'의 줄임말이다. 당시 3차장은 이학봉으로, 지난 2014년 사망했다.  
5·18 전문가들은 보안사에서 1993년 이후 1~4권을 은닉하거나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18 관련 군 기록은 1980년 5월 당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됐으나, 보안사의 5·18 중요 자료는 1993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폐기됐기 때문이다.  
5·18 전문가들은 사라진 네 권의 사진첩이 5·18 진상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라진 1~4권에 5·18 당시 발표·학살 경위, 헬기 사격, 암매장 등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자료가 담겼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5·18 전문가들은 "군의 자료 보관관리에 서 자료의 순번은 매우 중요하며, 5년부터

순번을 붙이는 자료는 없다. 특히 앞 순번 자료일수록 중요성이 큰 내용을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러한 자료는 보관 의 미도 있지만, 표지를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것을 보면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일 가능성도 있다. 1~4권이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밝혀지면 안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5·18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개된 사진첩 중 6권에서 지휘관의 사진들이 첨부됐다는 점 역시 눈여겨볼 중요 포인트라는 의견이 나온다.  
6권에서야 비로소 지휘관의 사진이 나온 것을 보면, 1~5권은 5·18 당시 광주에 내려온 계엄군 지휘부 모습 등 군 활동 전반을 설명하는 사진 모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공개된 5권에는 6권 이후 사진과는 달리 당시 광주에 배치된 군용 자동차 등 군 중심의 사진과 자료만 담겨 있었다.  
한 전문가는 "지휘관 등장에 앞서 제작된 1~5권 중 5권만 남겨 놓은 것은 공개돼도 문제가 없는 자료이기 때문"이라며 "1~4권은 세상에 공개돼선 안될 반드시 숨겨야 할 사진이나 자료들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1~4권의 자료가 사진첩이 아닌 5·18 당시 계엄군의 활동상을 담은 문서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보안사령부)가 공개한 5·18 사진첩 가운데 제7권의 두 페이지에 실린 네 컷의 사진.

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에겐 이번 사진첩을 제공한 국가기록원측도 1~4권이 사라진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기록원측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관해오

다 모두 공개한 것"이라며 "1~4권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박지원 의원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측에 1~4권의 행방에 대해 질의한 상태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사진첩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과거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과 2017년 국방부 특별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에겐 공개됐던 자료로, 당시에도 1~4권은 빠져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신용카드로 수천만원 물건 산 뒤 되팔아 해외 도주한 40대 탈북자 8년만에 검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천만원 상당의 차량과 기기 등을 산 뒤, 되팔아 현금을 챙겨 해외로 도주한 40대 탈북자가 수배 8년만에 검거됐다.  
광주동부경찰은 27일 외국으로의 이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로 물건을 구매 한 뒤, 중고로 되파는 수법으로 현금을 챙겨 캐나다로 도주한 혐의(사기)로 탈

북자 A(40)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뒤 할부로 차량과 건설기 등 총 87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다. 이후 구매 가격의 절반 수준에 되파는 방법으로 4000여만 원을 챙겨 캐나다로 도주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1년 캐나다에 있던 한 탈북자로부터 "캐나다는 한국보다 취업도 잘되고 훨씬 살기 좋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탈북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온 A씨는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뒤 지난 2011년 홀로 캐나다로 건너가 최근까지 인터넷이메일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여권이 만료되자, 한국으로 강제 출국했다가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전북 육군 모 부대장 여군 성추행 혐의 구속 수사

전북에 있는 육군 모 부대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은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A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구속·수사중이다.  
A대령은 업무 보고를 핑계로 부하 여군을 집무실로 불러 추행하고 수차례 사적 인 연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군은 이달 초 군에 성추행 사실을 알리고 A대령을 고소했다.  
군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대령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진술이나 사건의 경위는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박기섭 기자 parkks@

## '고려고 시험문제 유출 수사' 교사 1명만 송치

경찰, 교장·교감 등 '혐의 없음'  
광주경찰이 고려고 시험문제 유출사건과 관련해 교사 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선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고려고 시험문제 유출 수사와 관련해 수학교사 1명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교장과 교감, 다른 교사 등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해선 구체적인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수사를 자체 종결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한 교사는 수학 동아리에 배포한 유인물에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 시험 문제 5개를 그대로 출력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사형 선고

범인이 지난 4월 17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현)는 27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3일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연 동의했다. 배심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궁극적 형벌인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안인득에게 사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

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현병 망상으로 범행을 했더라도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여 불길을 피하려 내려오던 아파트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5명을 죽이고 4명은 살인미수, 2명은 상해, 11명은 화재로 인한 상해를 준 피해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 신분증 흘려 절도 들끓자 일본 도주... 불법체류 발각 '범행 들뜸'

신분증 흘려 절도 들끓자 일본 도주... 불법체류 발각 '범행 들뜸'  
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는데, 범 죄현장에 자신의 신분증을 흘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 다음날인 25일 일본으로 도피했다는 것.  
○...일본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건설현장을 전전하던 A씨는 건설현장 관리자와 다툼을 벌여 일본 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돼 추방, 지난 25일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검거.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도둑질을 하던 중 범죄현장에 자신의 신분증을 흘려 불안감을 느낀 20대가 범행 직후 일본으로 도망쳤지만, 불법체류 사실이 들들나면서 결국 철환했다.  
○...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 7월 24일 새벽 1시 40분께 광주시 광산구의 한 학원 화장실 장문으로 침입해 140만원 상당의 카메라를 훔치는 등 지난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5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상승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월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문의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266-4150 | 양산지점 573-4150 | 운암지점 528-4150 | 운암산지점 513-4150 | 매곡지점 572-4150 | 첨단지점 576-4150